

2019년 11월 소식

11월 선교편지, 2019 -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동부아프리카 선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과 가정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들 위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추수감사절도 행복한 절기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I. 탕가신학교 소식

1. 졸업식

제 19회 졸업식이 지난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모두 18명이 졸업했지요.

졸업식에 앞서 수요일 저녁에는 파송의 밤 행사를 갖고 지난 3년 동안 배우고 훈련받아 얻은 귀한 영적 보물들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영혼의 추수꾼으로 파송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전도자들이 되도록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학생들은 졸업식과 동시에 방학이 시작되었고 내년 1월 초에 돌아오게 됩니다.

2. 탕가신학교 동문 소식

2019년 한 해 동안 3명의 졸업생,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쉽고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우리들이 소원하는 궁극적 목적지에 입성 했으니 위로를 받습니다.

가정의 '가장'을 그리고 '목자'를 먼저 떠나 보낸 가정들과 교회들이 주님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얻어 맡겨진 일에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II. 리빙 스톤 중고등학교

1. 4학년 소식

중학교 4학년들은 국가시험을 끝으로 열흘 전에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4년동안 열심히 노력하였고 고등학교 입학자격을 결정하는 국가시험도 잘 치렀습니다. 모두가 좋은 성적을 거두어 본인들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길 기도로 후원해주세요.

2. 2학년 국가평가 시험과 6학년 도내 모의고사

2학년들도 국가평가 시험을 마치고 필드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고등학교 6학년 학생들도 국가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를 잘 마치고, 교육부에 제출해야 할 '프로젝트' 과제 수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 30일이면 모든 학생이 학기를 마치고, 방학이 시작됩니다.

3. 2020년도 신입생 모집.

올 해는 지난 2-3년전에 비하여 모집이 좀 수월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년 입학정원을 60-70명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목표에 도달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입생들 중에서 5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미리 출석하여 3주 동안 중요한 과목들을 미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III. 선교센터 건축소식

빨간 흙벽돌 제작관계로 한동안 쉬었던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일반 흙 벽돌이 아닌 한국에서 가져온 약품으로 처리된 특수한 벽돌을 찍는 기계입니다. 굳기가 현지 벽돌의 수배가 되어 무척 단단합니다. 지금 외벽 쌓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선교센터 건물은 서울에 있는 신성장로교회(담임 정민 목사님)후원으로 건축하고 있으며 내년 3-4월 안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IV. 지역교회 헌당예배와 교회건축 계획

지난 1개월 반 동안에 무혜자 군에 있는 세 곳 교회의 헌당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두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후원하여 건축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초부터 또 다른 2개의 교회 건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을 보여 주시고 또 건축이 지속될 수 있도록 후원자들을 끊임없이 연결 시켜주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27곳의 교회와 유치원 1곳 그리고 교회지도자들 훈련원 한 곳을 완공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하나님이 일하셨으며, 그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V. 과학 교사 한국 방문

지난달 선교소식에 나누었던 기쁜 소식입니다. 이 달 30 일 교사 4 명(리빙 스톤 교사 3 명, 이웃 정부학교 교사 1 명)과 저희 부부는 충남대학교 "백마 사회공헌 센터" 초청으로 한국으로 출국합니다. 주 목적은 과학교사 재교육을 위한 연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비자를 받았고 한국에서도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성공적진행으로, 그 효과성이 증명되어 지속 가능한 연수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게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출국준비가 끝나고 오는 토요일 출국합니다. 연수 기간은 약 2 주입니다.

VI. 박선교사 부부 미국방문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의 2 주간 연수를 마치고 곧장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12 월 13 일 한국을 출발하여 14 일 미국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2020 년 1 월 3 일 다시 사역을 향하여 출국합니다. 오랫동안 방문하게 되는데 모든분들의 얼굴을 뵈수 있다는 마음에 기쁨으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초를 함께 보낼수 있으니 더욱 감사하지요.

☆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1. 교사들의 한국 연수 여행을 위하여. 특별히 처음 경험하게 되는 추운 겨울 날씨를 잘 이기도록.
2. 탕가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하여.
3. 리빙 스톤 학교와 식구들을 위하여.
4. 박선교사 부부의 미국방문 여정을 위하여.

늘 함께 해주시는 선교회 식구들과 교회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Mungu Awabariki!

2019 년 11 월 24 일

박윤석, 김은래 선교사 드림.